

2010년 제3회 빈곤포럼

자산빈곤과 빈곤지속

석상훈(국민연금연구원)

▣ 일시 : 2010. 10. 14.(목) 16:00 ~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소회의실

제3회 빈곤포럼

■ 좌장 : 석재은(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 및 발표자

– 자산빈곤과 빈곤지속

석상훈(국민연금연구원)

■ 토론자

– 원외

지정 토론자

김대철 (국회예산정책처)

외부 토론자

김상철 (서울시의회)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김진욱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욱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허 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원내

이태진 (기초보장연구실장)

남상호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김태완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최현수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목 차

I. 문제제기	1
II.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3
1. 자산빈곤의 개념	3
2. 분석방법	4
III. 자산빈곤의 규모와 특성	6
1. 저소득층의 자산규모	6
2. 자산빈곤층의 규모	8
3. 자산빈곤층의 특성	10
IV. 자산빈곤의 지속	12
1. 자산빈곤의 이행확률	12
2.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 분석	15
V 결론	18

<표 목차>

<표 1> 자산의 정의	4
<표 2> 소득 5분위별 평균 자산의 변화 추이	8
<표 3> 연도별 자산빈곤층의 추정 규모	9
<표 4> 자산빈곤층의 특성	11
<표 5> 변수의 설명과 기초통계	15
<표 6>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	17

<그림 목차>

[그림 1] 연도별 평균 자산 및 부채의 변화 추이	7
[그림 2] 연빈곤이행 확률	14

자산빈곤과 빈곤지속

석상훈(국민연금연구원)

<요 약>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빈곤의 동태적 특징과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우리사회 소득계층간 자산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산빈곤가구의 규모는 소득빈곤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산빈곤가구는 소득빈곤가구와 비교하여 빈곤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빈곤상태로부터 탈출하기는 어려워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산빈곤가구는 소득빈곤가구에서 나타는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특히 소득빈곤계층일수록 자산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으며 이들 가계의 재무구조는 비빈곤계층과 비교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빈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 형성이 촉진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자산빈곤가구도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I. 문제제기

우리사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빈곤대책과 예산으로는 빈곤층이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뿐이고 심화되는 빈곤의 고착화나 대물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과 같이 현금을 지급해 소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는 근본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저소득계층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여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산¹⁾의 소득환산제는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수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여기서 재산이 최고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1) 여기서 재산은 자산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수 없고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 감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결국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이나 비정기적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이태진 외, 2005).

이에 우리나라에서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가지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약간의 자산을 가진 저소득계층은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즉, 중산층으로 올라갈 자산을 만들지 못하면 아예 빈곤층으로 남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은 자녀에게 대물림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근 국내에서도 빈곤층을 위한 개인개발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형태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을 통한 사회투자적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남상호, 2009)²⁾. 자산을 형성시키는 빈곤정책은 빈곤층이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협에 대비시켜주고, 인적자본을 개발함으로써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강성민·유태균, 2009).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업기간이 더 단축됨으로써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부모가 저축을 하거나 자산이 있을 경우 그 가구의 자녀들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자산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저축 습관 및 자산 축적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태진 외, 2005). 이와 같이 빈곤층 및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빈곤예방과 빈곤탈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빈곤관련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이하, 소득빈곤)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자산의 격차에 관한 연구(이정우·이성림, 2001; 김진영, 2002; 남상호, 2007; 남상호·권순현, 2008 등)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외를 통틀어 자산빈곤층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연구물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Haveaman and Wolff, 2004; Wolff and Caner, 2004; 이태진 외, 2005; 남상호·권순현, 2008; 남상호, 2009; 강성민·유태균, 2009 등). 자산빈곤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남상호·권순현(2008)와 남상호(2009)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산빈곤층의 특성과 자산빈곤층의 자산 보유에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강성민·유태균(2009)의 연구를 통해 자산빈곤가구가 소득빈곤가구에 비해 빈곤지속기간이 길고 빈곤탈출률이 낮으며 빈곤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자산빈곤층의 규모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자산빈곤의 이행과정과 자산빈곤의 결정요인을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을 사용하여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heterogeneity)과 상태의존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산빈곤의 규모와 심각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소득빈곤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계층을 과대 표집함으로써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실태에 대한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장에 이어 2장에서는 자산빈곤층을 정의한 다음, 3장에서는 자산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자산빈곤의 이행확률을 통하여 자산빈곤의 고착화 현상을 감지하고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2) 보건복지부는 2009년 지자체(경기, 인천, 부산, 전북)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를 체결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II.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1. 자산빈곤의 개념

자산빈곤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빈곤과는 달리 구체적인 정의가 아직까지는 없으나 빈곤이 생계의 최소한의 이하임을 감안하여 자산빈곤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빈곤의 정의인 '일정기간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유형(wealth-type)을 가지지 못한 가구'라는 Haveman and Wolff(2004)의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먼저, '일정기간'은 소득이 없을 때 자산으로 가구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타당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이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실업상태에서 고용이 되는 기간을 소득의 발생에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의한다. 고용보험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을 보호하는 것을 감안하여 이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자산빈곤선은 자산이 최저생계비 3개월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로 정의한다³⁾.

마지막으로 소득빈곤에서 빈곤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득의 정의가 필요하듯이 자산빈곤에서는 자산 유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자산은 <표 1>과 같이 크게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한다. 총자산의 하위 변수 중 '자가주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주택유형이 자가인 경우 주택가격, 전세인 경우 전세보증금, 보증부월세인 경우 보증금을 의미하고, '부동산자산'은 자가주택과 자가주택이외의 소유부동산과 점유부동산의 가격을 합한 값이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및 채권과 사채 등과 같은 기타 금융자산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자산의 정의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자산유형으로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측정된 '자산1'과 '자산1'에서 거주주택가격을 제외한 순자산으로 측정된 '자산2',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측정된 '자산3'의 세 가지 형태로 자산을 정의한다. 여기에는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실업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자산으로부터 소득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3) 남상호(2009)은 자산빈곤의 절대기준으로 가구의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을 자산빈곤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6개월로 설정한 근거로 실업상태에서 6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장기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1> 자산의 정의

항목	구성내역
총자산	부동산자산 + 금융자산 + 기타자산
부동산자산	자가주택 + 소유부동산 + 점유부동산
자가주택	거주주택가격
소유부동산	거주주택외 소유 주택 + 주택외 건물 + 토지
점유부동산	거주주택외 점유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준 것 + 기타(권리금 등)
금융자산	예금 + 적금 + 주식 · 채권 + 기타(사채 등)
기타자산	농기계 + 농축산물 + 자동차 + 기타(운동클럽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등)
총부채	금융기관대출 + 일반사채 + 카드빚 + 전세보증금 + 외상 및 미리탄 계돈 등
자산1	총자산 - 총부채
자산2	자산1 - 자가주택
자산3	금융자산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사용자 지침서 2009』, 2010.

그리고 국내의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소득빈곤에서와 같이 평균 또는 중위자산의 일정 비율을 자산빈곤선으로 하는 상대기준의 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상대기준으로 자산빈곤을 정의할 경우 평균 또는 중위 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몇 퍼센트를 기준선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소득빈곤선의 설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설정한다⁴⁾.

2. 분석방법

자산빈곤의 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산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간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과 자산빈곤의 상태의존성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자산빈곤의 경험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구간의 이질성은 자산축적에 대한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성향이나 투자성향 등의 특성 때문에 자산축적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산빈곤의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은 가구들의 자산축적에 대한 선호, 동기 등과 같은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 때문인지 아니면 자산축적의 장벽 등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정책은 매우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간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과 상태의존성을 통제할 수 있는 동태적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Dynamic random effect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자산빈곤의 상태의존성과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동태적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은 자산기준으로 빈곤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때 t 기 가구 i 의 자산빈곤 여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동태적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4) 자산빈곤선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정의한 연구로는 Caner and Wolff(2004), Wolff(1990), 이태진 외(2005), 남상호(2007, 2009), 강성민 외(2009) 등이 있다.

$$y_{i,t}^* = \gamma y_{t-1} + x'_{i,t} \beta + u_{i,t} \quad (1)$$

위 식에서 $y_{i,t}^*$ 는 잠재종속변수이고, $y_{i,t}$ 는 관측된 이항결과변수이다.

$$\text{즉, } y_{i,t} = \begin{cases} 1 & \text{if } y_{i,t}^* \geq 0 \\ 0 & \text{else} \end{cases}$$

여기서 $x_{i,t}$ 는 설명변수들이며, y_{t-1} 는 $y_{i,t}$ 와 구조적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수이다. 그런데 $y_{i,t}$ 와 y_{t-1} 는 과거의 자산빈곤 경험이 현재의 자산빈곤 상태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특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구간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오차항 $u_{i,t}$ 가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u_{i,t} = \alpha_i + v_{i,t} \quad (2)$$

식 (2)를 식 (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y_{i,t}^* = \gamma y_{t-1} + x'_{i,t} \beta + \alpha_i + v_{i,t} \quad (3)$$

식 (3)에서 같은 가구의 두 연속된 오차항간의 상관관계는 $\lambda = \text{corr}(v_{i,t}, v_{i,t-1}) = \sigma_\alpha^2 / (\sigma_\alpha^2 + \sigma_u^2)$, $t=2, \dots, T$ 가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설명할 수 없는 전체 분산 중에서 관찰될 수 없는 이질성의 분산의 비율이 된다.

그런데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으로 식 (3)을 추정할 때, y_{t-1} 의 존재로 인해 일관된 추정치를 얻지 못한다. 이는 초기조건이 가구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과 상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기조건의 문제란, 조사에서 관찰된 기간의 처음 시점의 조건이 개인이 실제 사건을 경험한 확률적 과정의 처음 시점의 조건이 다른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석상훈, 2007).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조건을 외생적으로 취급하여 발생하는 편의를 교정함으로써 일관된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Heckman(1981)의 추정량을 이용한다. Heckman이 제안한 잠재변수의 초기조건에 대한 축약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_{i,1}^* = z'_{i,1} \pi + \eta_i$$

여기서 $z_{i,1}$ 는 설명변수의 초기값(즉, $x_{i,1}$)을 포함한 외생적인 도구변수이고, η_i 는 α_i 와 상관되어 있다. 그러나 2기 이후부터는 상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eta_i = \theta \alpha_i + u_{i,1}.$$

여기서 α_i 와 $u_{i,1}$ 은 서로 독립적이다. 만약 $u_{i,1}$ 이 2기 이후 $u_{i,t}$ 와 같은 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면, 초기의 잠재변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y_{i,1}^* = z'_{i,1}\pi + \theta\alpha_i + u_{i,1}$$

여기서 z 는 1기의 x 변수 값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다수 주어진 α_i 하에서 가구 i 의 관측된 가능성은 $u_{t,i}$ 가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Phi[(z'_{i,1}\pi + \theta\alpha_i)(2y_{i,1} - 1)] \prod_{t=2}^T \Phi[(\gamma y_{i,t-1} + x'_{i,t}\beta + \alpha_i)(2y_{i,t} - 1)]$$

우도함수로 도출하면,

$$\prod_i \int_{\alpha^*} \left[\Phi[(z'_{i,1}\pi + \theta\sigma_\alpha \alpha^*)(2y_{i,1} - 1)] \prod_{t=2}^T \Phi[(\gamma y_{i,t-1} + x'_{i,t}\beta + \alpha_i)(2y_{i,t} - 1)] \right] dF(\alpha^*)$$

여기서, F 는 $\alpha^* = \alpha/\sigma_\alpha$ 의 함수이다(Hsiao,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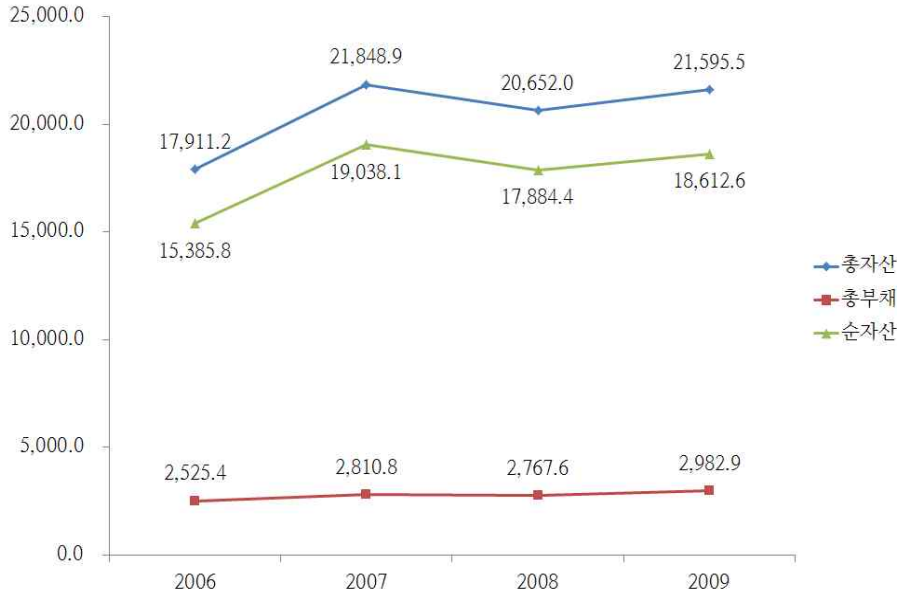
Ⅲ. 자산빈곤의 규모와 특성

1. 저소득층의 자산규모

자산빈곤의 규모를 살펴보기에 앞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산 및 부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우선 총자산은 2006년 17,911.2천원, 2007년 21,848.9천원을 기록하다가 금융위기를 맞아 2008년 20,652.0천원으로 2007년과 대비하여 5.5%나 줄어들었다가 2009년 21,595.5천원으로 2008년과 대비하여 4.6%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산의 규모가 다시 회복하기는 하였지만 위기 이전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총부채는 2006년 2,525.4천원, 2007년 2,810.8천원을 기록하다가 2008년 2,767.6천원으로 2007년과 대비하여 1.5% 감소에 머물러 총자산과 비교하여 감소폭이 낮았으나 2009년에는 2,982.9천원으로 2008년과 대비하여 7.8% 증가하여 총자산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하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총자산의 추세와 비슷하게 2006년 15,385.8천원, 2007년 19,038.1천원을 기록하며 증가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17,884.4천원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18,612.6천원으로 다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그림1] 연도별 평균 자산 및 부채의 변화 추이

(단위: 천원)



주 1) 모든 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를 사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함.

2) 해당년도 횡단면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이러한 자산규모의 변화는 어느 소득계층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소득계층간의 자산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하여 소득계층별로 5분위 집단을 구한 뒤, 소득계층별 자산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자산1'에서 상위소득 5분위와 하위소득 1분위 계층간의 평균 자산의 격차는 2006년 5.57배, 2007년 6.85배를 기록하다가 2008년 6.68배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 7.64배로 다시 소득계층간 자산의 격차는 악화되었다. '자산1'의 기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산규모가 감소한 집단은 소득 4분위 계층이며 이 집단의 자산규모는 2007년과 대비하여 30.9%나 감소하였다. 한편, '자산1'에서 자가주택을 제외한 '자산2'에서 상위소득 5분위와 하위소득 1분위 계층간의 평균 자산의 격차는 2006년 7.55배, 2007년 12.49배를 기록하다가 2008년 8.30배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 9.11배로 그 격차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벌어졌다. '자산1'과 유사하게 '자산2'의 기준에서도 금융위기의 여파는 소득 4분위 계층에 크게 받아 이들 집단의 자산규모는 2007년과 대비하여 53.6%나 감소하였으며 소득 5분위에서도 5.6%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끝으로 금융자산으로 측정된 '자산3'에서 상위소득 5분위와 하위소득 1분위 계층간의 평균 자산의 격차는 '자산1'과 '자산2'와는 달리 2006년 9.22배, 2007년 12.45배, 2008년 13.52배를 기록하다가 2009년에 11.35배로 그 격차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자산 유형에 비해 그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자산3'은 금융자산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여파로 소득 3분위 제외된 나머지 모든 계층에서 자산규모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그 감소폭은 저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6년과 2009년간 자산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의 자산규모는 2006년과 비교하여 모든 소득계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상위 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반적으로 자산보유 규모가 작은 저소득계층은 그 자산규모의 변화폭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제도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을 유인하지 못한다면 소득계층간 자산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산빈곤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표 2> 소득 5분위별 평균 자산의 변화 추이

(단위: 천원, %)

	평균자산				증감율			
	2006	2007	2008	2009	2006-07	2007-08	2008-09	2006-09
자산1								
1분위	6,529.5	6,461.2	6,865.8	6,579.5	-1.0	6.3	-4.2	0.8
2분위	8,999.6	10,079.6	11,125.7	11,190.4	12.0	10.4	0.6	24.3
3분위	10,543.5	12,278.8	15,606.7	14,313.7	16.5	27.1	-8.3	35.8
4분위	16,630.3	27,112.6	18,721.4	22,510.5	63.0	-30.9	20.2	35.4
5분위	36,342.7	44,245.8	45,871.7	50,285.3	21.7	3.7	9.6	38.4
5분위/1분위	5.57	6.85	6.68	7.64	23.0	-2.4	14.4	37.3
자산2								
1분위	2,283.2	1,873.9	2,661.0	2,971.9	-17.9	42.0	11.7	30.2
2분위	2,969.8	3,127.8	3,816.7	4,025.7	5.3	22.0	5.5	35.6
3분위	3,116.6	3,935.6	6,183.0	4,814.5	26.3	57.1	-22.1	54.5
4분위	6,045.3	15,380.2	7,137.1	9,620.6	154.4	-53.6	34.8	59.1
5분위	17,244.6	23,397.9	22,092.9	27,076.6	35.7	-5.6	22.6	57.0
5분위/1분위	7.55	12.49	8.30	9.11	65.3	-33.5	9.7	20.6
자산3								
1분위	655.0	688.0	595.3	690.5	5.0	-13.5	16.0	5.4
2분위	796.0	1,274.0	1,175.8	1,492.0	60.1	-7.7	26.9	87.4
3분위	1,408.1	1,631.3	1,883.3	1,672.4	15.9	15.4	-11.2	18.8
4분위	2,126.6	2,911.2	2,729.8	3,431.0	36.9	-6.2	25.7	61.3
5분위	6,035.9	8,563.3	8,046.6	7,835.7	41.9	-6.0	-2.6	29.8
5분위/1분위	9.22	12.45	13.52	11.35	35.1	8.6	-16.0	23.1

주 1) 모든 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를 사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함.

2) 해당년도 횡단면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2. 자산빈곤층의 규모

이제 자산유형별로 자산빈곤가구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자산빈곤가구의 규모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서는 절대적 기준 뿐만 아니라 상대적 기준에서도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규모도 함께 제시하여 자산빈곤이 소득기준 빈곤에 비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산빈곤층의 규모를 추정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자산빈곤층의 추정 규모

(단위: %)

		빈곤율				변화율			
		2006	2007	2008	2009	2006-07	2007-08	2008-09	2006-09
절대빈곤	자산1	11.3	11.2	10.7	11.1	-0.6	-5.1	4.4	-1.5
	자산2	37.4	37.3	35.1	34.9	-0.4	-5.9	-0.5	-6.7
	자산3	35.0	31.3	29.5	29.3	-10.7	-5.5	-0.7	-16.1
	소득	14.0	11.9	10.6	9.8	-14.9	-11.3	-7.6	-30.2
상대빈곤	자산1	31.2	31.1	32.5	33.0	-0.3	4.5	1.5	5.8
	자산2	41.2	40.8	38.2	38.6	-1.0	-6.4	1.0	-6.3
	자산3	37.9	37.9	37.3	38.1	0.0	-1.6	2.1	0.5
	소득	18.0	18.4	18.5	17.6	2.2	0.5	-4.9	-2.2

주 1) 절대빈곤의 자산빈곤은 각 가구의 3개월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빈곤은 최저생계비 미만이며 상대빈곤은 자산빈곤선은 자산형태별 중위값의 50% 미만, 소득빈곤은 경상소득의 50% 미만인 경우임.

2) 자산빈곤1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순자산1), 자산빈곤2은 거주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순자산2), 자산빈곤3은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자산빈곤상태를 측정함.

3) 각년도 횡단면 가구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 KOWEPS 1-4차년도 원자료

먼저, 절대기준에서 '자산1'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가구는 2006년 전체 가구의 11.3%, 2007년 11.2%, 2008년 10.7%를 기록하다가 2009년에 들어와 11.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산2'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가구는 '자산1' 기준 보다 상당히 높게 추정되어 2006년 전체 가구의 37.4%, 2007년 37.5%를 기록하다가 2008년 29.5%로 낮아졌으며 2009년에도 29.3%를 기록하고 있다. '자산3'으로 측정된 자산빈곤가구는 '자산2'의 기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2006년 35.0%, 2007년 31.3%, 2008년 29.5%, 2009년 29.3%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빈곤가구의 규모로는 '자산1'로 측정된 자산빈곤가구의 규모가 '소득'으로 측정된 소득빈곤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며 빈곤가구의 변화 추세는 '자산3'으로 측정된 자산빈곤가구의 변화추세가 '소득'으로 측정된 소득빈곤가구의 변화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자산분포를 반영하여 상대기준에서 다시 추정해 보면 절대기준의 결과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자산1'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가구는 2006년 전체 가구의 31.2%, 2007년 31.1%를 미미한 수준이지만 감소하다가 2008년 32.5%로 상승하여 2009년 33.0%를 기록하여 절대기준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산2'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가구는 2006년 전체 가구의 41.2%, 2007년 40.8%, 2008년 38.2%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38.6%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자산3' 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가구는 2006년 전체 가구의 37.9%, 2007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다 2008년 37.3%를 기록하며 감소하다가 2009년 38.1%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6년과 2009년간 자산빈곤가구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절대기준으로 2009년 자산빈곤가구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2006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나 상대기준의 결과는 이와 반대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산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할 경우 평균 순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위 순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몇 %미만을 빈곤선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연구자마다 다양한 자산빈곤의 규모 제시되는 문제가 있고, Haveman and Wolff(2001)의 자산빈곤 기준의 핵심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가구의 소득원이 차단되었을 때 자산만으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논의에서는 절대기준으로 자산빈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자산빈곤층의 특성

자산빈곤층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자산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표 4> 참조). 일단, 자산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자산빈곤가구는 비교적 소득빈곤가구의 특성은 그대로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 특성으로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연령은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그리고 고용상태는 비취업상태에 있을수록 그리고 광역시 이하의 월세거주일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빈곤이란 사전적으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 즉,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기본적인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원이 소득에서 자산으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소득빈곤가구의 특성과 특별히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산유형간 비교를 통하여 비교 항목간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 자산유형별 자산빈곤가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산1’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는 빈곤한 다른 자산유형의 가구 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구주 가구가 많으며 광역시나 도에 거주하고 자가주택의 점유형태는 월세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다. 그리고 ‘자산2’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자가보유율이 높은 집단이며, ‘자산3’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는 가구주가 비취업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다.

자산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 이들 자산빈곤 가구는 가계재정지표에도 그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자산1’의 경우 자산의 구성항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주택이 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자산빈곤 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가구간 부동산자산의 격차는 20.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산빈곤 가구의 경우에는 총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총부채/총자산’의 비율은 20.07로 총자산에 비하여 총부채가 20.07배나 많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자산빈곤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음(-)의 값을 지니고 있다. 또한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총자산’의 비율은 0.35로 나타나 ‘자산1’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의 경우가 다른 자산유형의 빈곤한 가구 보다 자산의 유동성이 비교적 높으나 총자산에 비해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산1’에서 거주주택의 가격을 뺀 ‘자산2’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는 다른 자산유형의 빈곤한 가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계재정상태가 양호하며 빈곤하지 않은 가구와의 가계재정지표의 격차도 다른 자산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자산으로 측정된 ‘자산3’의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가구간 금융자산의 격차가 61.3배나 되어 다른 자산유형의 빈곤한 가구 보다 자산의 유동성이 상당히 낮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자산빈곤 가구와 소득빈곤 가구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소득빈곤 가구와 구별되는 자산빈곤 가구의 특징은 가계재정지표나 자산의 구성까지 고려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자산빈곤층의 특성

(단위: %, 세, 명, 천원)

			자산1		자산2		자산3		소득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가구주 특성	성별	남성	83.2	62.1	86.5	73.8	85.9	70.1	83.8	59.9
		여성	16.8	37.9	13.5	26.2	14.1	29.9	16.2	40.1
	연령	<25	0.4	1.0	0.3	1.0	0.4	0.7	0.6	0.2
		25-34	12.8	8.4	13.5	8.4	14.5	7.6	13.6	3.0
		35-49	37.9	39.9	38.0	39.9	39.9	34.4	41.0	16.2
		50-64	26.1	22.7	27.8	22.7	26.7	23.8	26.7	19.0
		65+	22.7	28.0	20.3	28.0	18.5	33.6	18.1	61.7
	학력	고졸이상	67.5	50.2	70.6	58.7	73.4	48.8	70.9	26.2
		고졸미만	32.5	49.8	29.4	41.3	26.6	51.2	29.1	73.8
	경제활동 상태	취업	73.6	62.1	75.2	69.2	78.1	59.7	78.6	24.7
		비취업	26.4	37.9	24.8	30.8	21.9	40.3	21.4	75.3
	배우자 유무	있음	74.9	46.4	78.1	64.9	77.2	60.1	74.8	50.2
		없음	25.1	53.6	21.9	35.1	22.8	39.9	25.2	49.8
	가구 특성	가구원수		2.95	2.53	3.00	2.86	3.00	2.71	3.00
점유형태		자가	59.8	7.3	60.1	52.9	60.1	40.9	55.3	45.0
		전세	20.7	7.5	22.7	16.5	20.5	16.6	19.6	17.0
		월세	13.4	55.6	13.0	26.3	12.2	30.7	17.6	20.6
		기타	6.1	29.5	4.2	4.3	7.3	11.7	7.5	17.5
소득빈곤 여부		비빈곤	90.1	72.5	92.8	82.2	94.2	75.2	-	-
		빈곤	9.9	27.5	7.2	17.8	5.8	24.8	-	-
거주지역		서울	21.6	16.2	20.5	23.4	22.2	18.4	22.0	14.2
		광역시	24.3	28.8	22.8	28.6	23.9	27.0	25.0	23.6
		도	54.1	55.0	56.7	48.0	53.9	54.6	53.0	62.2
재정 상태	총자산		22,926.9	1,231.9	27,393.1	10,836.8	26,204.0	8,070.1	22,254.1	7,416.4
	부동산자산		19,004.4	922.9	22,266.6	9,937.7	21,302.1	7,649.6	18,428.9	6,624.8
	금융자산		3,096.4	186.3	4,082.3	593.5	4,014.5	65.5	3,067.9	630.0
	기타자산		826.1	122.7	1,044.3	305.5	920.9	366.8	822.9	180.3
	총부채		2,674.0	3,440.2	2,200.6	3,922.7	2,952.8	2,365.1	2,958.9	1,322.6
	순자산(총자산-총부채)		21,799.4	-2,361.0	27,100.1	7,445.7	25,050.6	6,135.6	20,818.0	6,540.2
	경상소득		298.8	139.3	333.6	203.1	340.0	152.6	312.4	49.8
	가계지출		255.5	142.6	272.8	201.9	281.4	159.2	264.4	84.4
	금융자산/총자산		0.19	0.35	0.22	0.10	0.25	0.10	0.20	0.20
	총부채/총자산		0.13	20.07	0.08	3.15	0.20	6.36	1.47	6.82

- 주 1) 가계지출 = 식료품비 + 주거비 + 광열수도비 + 가구가사용품비 + 피복신발비 + 보건의료비 + 교육비 + 교양오락비 + 교통통신비 + 기타소비지출 + 사적이전지출 +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 + 지출한 이자
- 2) 모든 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를 사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함.
- 3) 각 수치는 각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4년간의 평균치임.

IV. 자산빈곤의 지속

1. 자산빈곤의 이행확률

자산빈곤의 이행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자산빈곤의 이행확률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전년도 비빈곤가구 가운데 다음 연도에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은 '자산1' 기준으로 2006-07년 4.9%에서 2007-08년 4.3%를 기록해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이 낮아졌으나 2008-09년 4.6%로 다시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이 높아졌으나 다른 자산유형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자산2' 기준으로 빈곤상태의 진입할 확률은 2006-07년 17.6%에서 2007-08년 15.3%, 2008-09년 15.0%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산3' 기준은 2006-07년 16.2%, 2007-08년 14.2%를 기록해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이 급격히 낮아졌으나 2008-09년 15.4%로 빈곤상태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기준의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은 2006-07년 5.6%에서 2007-08년 5.5%, 2008-09년 5.2%를 기록해 규모면으로는 '자산1'과 유사하나 변화 추세는 '자산2'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산1' 기준은 소득기준보다 비빈곤에서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이 낮지만 나머지 자산기준은 소득기준 보다 비빈곤에서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년도의 빈곤가구 가운데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은 '자산1' 기준으로 2006-07년 40.1%에서 2007-08년 37.3%, 2008-09년 36.0%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보이고 있다. '자산2' 기준은 2006-07년 30.0%에서 2007-08년 30.3%로 30%대에 머물러 있다가 2008-09년 28.6%로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산3' 기준으로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은 2006-07년 41.0%에서 2007-08년 37.3%, 2008-09년 36.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기준으로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2006-07년 51.3%에서 2007-08년 47.3%로 하락하였으나 2008-09년 다시 49.0%로 자산보다 소득빈곤에서의 빈곤탈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자산빈곤 가구의 경우 소득빈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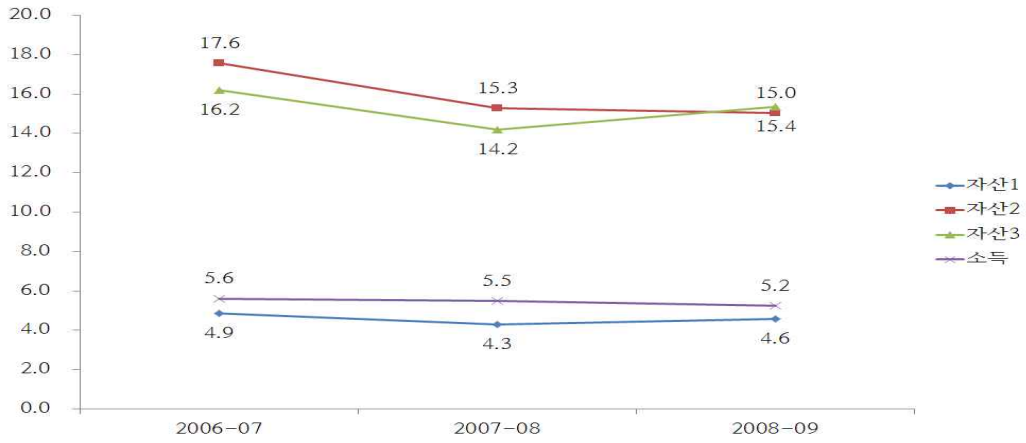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전년도 빈곤가구 가운데 빈곤상태가 지속되는 확률은 '자산1' 기준으로 2006-07년 59.9%에서 2007-08년 59.4% 다소 하락하다가 2008-09년 60.4%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산2' 기준으로 빈곤상태가 지속되는 확률은 2006-07년 70.0%, 2007-08년 69.7%, 2008-09년 71.4%로 '자산1'과 같은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빈곤상태가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산3' 기준으로 빈곤상태가 지속되는 확률은 2006-07년 59.0%에서 2007-08년 62.7%, 2008-09년 64.0%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기준으로 빈곤상태가 지속될 확률은 2006-07년 48.7%에서 2007-08년 52.7%를 기록하며 상승하다가 2009년 51.0%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자산기준이 소득기준 보다 빈곤상태로 진입하게 되면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자산빈곤이 소득빈곤과 비교하여 빈곤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빈곤상태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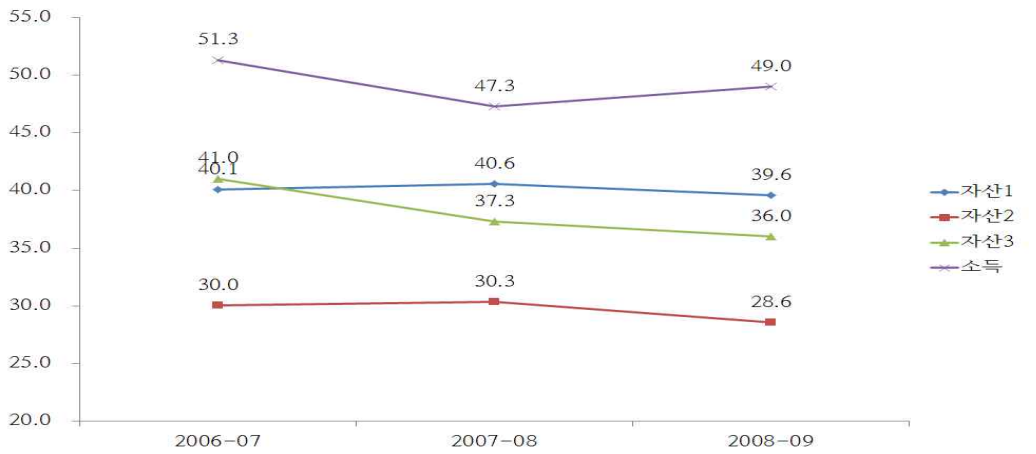
탈출하기가 어려워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산빈곤층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빈곤층에 대한 빈곤대책과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산빈곤에 대한 대책을 마련위한 선행 작업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소득빈곤층과 비교하여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2] 연빈곤이행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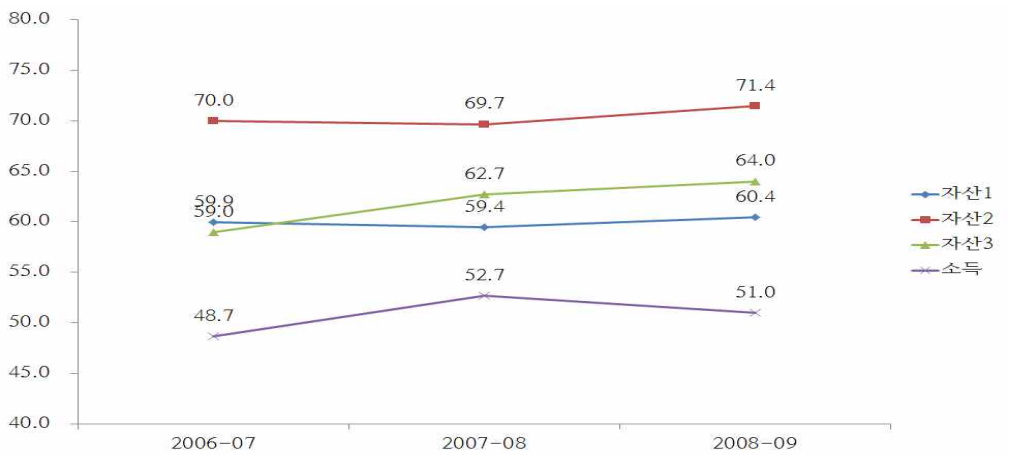
(단위: %)



빈곤진입



빈곤탈출



빈곤지속

주: 빈곤지속 확률은 전년도(t-1) 횡단면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KOWEPS 연간 연결패널 자료

2.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은 소득에 비해 빈곤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으나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확률은 비교적 낮아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자산빈곤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분석 대상가구를 가구식별번호를 이용하여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로 구성하여 개별 가구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통제하는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을 통하여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추정에 사용된 표본은 4,248가구의 16,992개 관측치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종속변수로는 빈곤=1, 비빈곤=0으로 하는 자산유형별 빈곤여부가 사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는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상태지속의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도입되었다. 그리고 자산빈곤의 가능성이 개별 가구 가구주가 지니고 있는 지능이나 능력부족 또는 낮은 동기수준과 같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학력, 연령, 성별 그리고 고용상태 등의 변수가 도입되었으며 그리고 배우자의 존재여부, 가구원수, 자가주택소유여부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 자산빈곤의 가능성이 높을 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끝으로 가계재정상태에 따른 자산빈곤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자산/총자산'과 '총부채/총자산'의 지표가 사용되었다.

<표 5> 변수의 설명과 기초통계

변수명	변수설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pov_ass1	자산빈곤여부(자산1)	16,992	0.08	0.27	0	1
pov_ass2	자산빈곤여부(자산2)	16,992	0.37	0.48	0	1
pov_ass3	자산빈곤여부(자산3)	16,992	0.36	0.48	0	1
pov_inc	소득빈곤여부	16,992	0.18	0.38	0	1
Lpov_ass1	자산빈곤시차변수(자산1)	16,991	0.08	0.27	0	1
Lpov_ass2	자산빈곤시차변수(자산2)	16,991	0.37	0.48	0	1
Lpov_ass3	자산빈곤시차변수(자산3)	16,991	0.36	0.48	0	1
Lpov_inc	소득빈곤시차변수	16,991	0.18	0.38	0	1
sex	성별(1=여성)	16,992	0.21	0.40	0	1
age	연령	16,992	55.66	15.03	14	93
age2	연령 제곱	16,992	3323.57	1682.46	196	8649
spo	배우자존재여부(1=있음)	16,992	0.72	0.45	0	1
edu	교육수준(1=고졸이상)	16,992	0.53	0.50	0	1
work	취업여부(1=취업)	16,992	0.59	0.49	0	1
fnum	가구원수	16,992	2.78	1.27	1	8
house	자가주택소유여부(1=소유)	16,992	0.65	0.48	0	1
reg	지역(1=광역시 이상)	16,992	0.45	0.50	0	1
index1	금융자산/총자산	16,992	0.15	0.19	0	1
index2	총부채/총자산	16,992	0.58	6.87	0	666.67

이러한 변수를 통하여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빈곤의 상대의존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빈곤의 시차변수의 계수가 양수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구간 이질성을 통제한 후 과거의 빈곤경험과 미래의 빈곤간의 구조적 관계, 이른바 상대의존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1'과 '자산2' 기준의 자산빈곤의 시차변수의 계수의 값이 소득빈곤의 시차변수의 계수의 값 보다 더 크게 나타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빈곤에 비해 자산빈곤의 고착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빈곤층에 대해서는 자산형성을 통하여 초기에 자산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초기에 막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자산빈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자산빈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존의 소득빈곤에서 논의 되는 요인과 일치하고 있다. 즉,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교육수준이 낮거나 연령이 체증적으로 높아질수록 그리고 비취업상태에 있을수록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빈곤계층일수록 자산을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득빈곤뿐만 아니라 자산빈곤에도 빠질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소득빈곤에서의 빈곤대책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산 및 소득빈곤계층에 있어 공통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산빈곤계층 뿐만 아니라 소득빈곤계층에 대해서도 주택마련을 위해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이나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소득빈곤계층과 차이를 보이는 자산빈곤계층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자. 먼저 '자산2'와 '자산3' 기준의 자산빈곤계층은 소득빈곤계층과 동일하게 가구주 연령에 따라 빈곤에 빠질 위험이 체증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으나 주택을 자산으로 포함한 '자산1' 기준의 자산빈곤계층의 경우에는 연령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주택마련이 연령과 상관없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젊은 시절에 보유하고 있는 낮은 자산의 규모가 점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축적됨에 따라 자산은 은퇴 시점에 정점을 달하였다가 은퇴 이후 시절에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후 자산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대비한 자산형성과정이 개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고용상태 변수는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으로 측정된 '자산2' 기준에서는 다른 자산의 유형과는 달리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 가구주가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자산빈곤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자산2' 기준에서는 다른 자산의 유형과는 달리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자산빈곤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을 '자산2'와 같이 정의할 경우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자산빈곤계층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빈곤한 가구의 자산 유동성을 보여주는 '금융자산/총자산'의 비율이 '자산1' 기준에서는 양(+)의 값인 것에 반면에 '자산2'와 '자산3' 기준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 이들 집단에서는 자산 유동성이 낮을수록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의 정의에 따라 거주주택자산을 제외한 '자산2'와 금융자산으로 측정된 '자산3'에서의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산1'과 같이 거주주택을 자산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거주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자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자산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에서 거주주택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표 6>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

	자산1			자산2			자산3			소득		
Pov_t-1	0.59	(0.12)	***	0.56	(0.05)	***	0.32	(0.05)	***	0.36	(0.06)	***
sex	0.09	(0.17)		0.58	(0.10)	***	0.26	(0.08)	***	0.13	(0.08)	*
age	-0.01	(0.03)		-0.10	(0.01)	***	-0.02	(0.01)	*	-0.05	(0.01)	***
age2	<0.01	(<0.01)		<0.01	(<0.01)	***	0.00	(<0.01)	**	<0.01	(<0.01)	***
spo	-0.67	(0.19)	***	-0.45	(0.09)	***	-0.32	(0.08)	***	-0.13	(0.08)	
edu	-0.51	(0.15)	***	-0.31	(0.07)	***	-0.57	(0.06)	***	-0.46	(0.06)	***
work	-0.55	(0.15)	***	0.10	(0.06)		-0.21	(0.06)	***	-0.78	(0.06)	***
fnum	0.15	(0.06)	***	0.06	(0.03)	**	0.13	(0.02)	***	-0.03	(0.03)	
house	-1.66	(0.18)	***	-0.22	(0.06)	***	-1.35	(0.07)	***	-0.29	(0.06)	***
reg	-0.14	(0.12)		0.57	(0.06)	***	-0.05	(0.05)		-0.16	(0.05)	***
pov_inc	0.48	(0.12)	***	0.53	(0.06)	***	0.71	(0.06)	***			
index1	0.45	(0.23)	**	-4.76	(0.20)	***	-8.73	(0.27)	***			
index2	4.74	(0.33)	***	5.38	(0.20)	***	0.17	(0.01)	***			
_cons	-3.64	(0.88)	***	1.18	(0.40)	***	1.56	(0.39)	***	0.10	(0.41)	
초기조건												
sex	-0.42	(0.24)	*	0.50	(0.14)	***	0.12	(0.12)		0.46	(0.11)	***
age	0.02	(0.04)		-0.06	(0.02)	***	-0.04	(0.02)	***	-0.05	(0.02)	***
age2	<0.01	(<0.01)		<0.01	(<0.01)	***	<0.01	(<0.01)	***	<0.01	(<0.01)	***
spo	-0.93	(0.28)	***	-0.57	(0.14)	***	-0.46	(0.11)	***	0.25	(0.12)	**
edu	-0.71	(0.22)	***	-0.39	(0.10)	***	-0.52	(0.08)	***	-0.43	(0.08)	***
work	-0.02	(0.21)		0.13	(0.10)		0.01	(0.08)		-1.29	(0.09)	***
fnum	0.16	(0.09)	*	0.04	(0.04)		0.17	(0.03)	***	-0.07	(0.03)	**
house	-1.73	(0.30)	***	-0.34	(0.08)	***	-1.14	(0.08)	***	-0.43	(0.07)	***
reg	-0.18	(0.16)		0.70	(0.08)	***	-0.12	(0.06)	*	-0.14	(0.07)	**
pov_inc	0.53	(0.19)	***	0.43	(0.09)	***	0.59	(0.07)	***			
index1	0.91	(0.33)	***	-4.39	(0.32)	***	-7.22	(0.31)	***			
index2	4.31	(0.61)	***	5.02	(0.31)	***	0.47	(0.04)	***			
_cons	-3.84	(1.18)	***	0.39	(0.53)		1.73	(0.44)	***	1.09	(0.47)	**
λ	0.55	(0.06)	***	0.58	(0.03)	***	0.51	(0.03)	***	0.42	(0.03)	***
θ	1.13	(0.31)	***	1.06	(0.11)	***	0.76	(0.07)	***	0.95	(0.10)	***
	Number of obs=16,992 Wald chi2(13)=299.75 Prob > chi2=0 Log likelihood=-1,098.32			Number of obs=16,992 Wald chi2(13)=1,621.04 Prob > chi2=0 Log likelihood=-5,942.5			Number of obs=16,992 Wald chi2(13)=1,858.63 Prob > chi2=0 Log likelihood=-6,591.85			Number of obs=16,992 Wald chi2(10)=1,176.52 Prob > chi2=0 Log likelihood=-5,614.59		

주 1)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는 1%, **는 5%, *는 10% 내에서 각각 유의함

V 결론

본 연구는 자산빈곤의 실태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관측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빈곤의 동태적 특징과 자산빈곤층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주요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간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계층간 자산규모의 격차와 더불어 소득계층간 자산변화율의 격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소득 5분위와 하위소득 1분위의 자산격차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측정된 '자산1' 기준으로 5-8배, 순자산에서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측정된 '자산2' 기준으로 7-12배, 금융자산으로 측정된 '자산3' 기준으로 9-1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자산빈곤가구의 규모는 소득빈곤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절대기준으로 측정된 자산유형별 빈곤가구의 규모는 '자산1' 기준으로 10-11%, '자산2' 기준으로 34-37%, '자산3' 기준으로 29-35%에 달하고 있어 9-15% 수준인 소득빈곤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또한 상대기준으로 측정된 자산빈곤율도 '자산1' 기준으로 31-33%, '자산2' 기준으로 38-41%, '자산3' 기준으로 37-38%로 높은 반면에 소득빈곤은 17-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분석대상 기간 중 소득빈곤은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자산빈곤은 이와 반대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자산빈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산빈곤가구의 빈곤고착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빈곤의 이행확률을 통해 과거의 빈곤경험이 현재에도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소득빈곤의 경우 보다 높다는 사실은 가구간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 한 계량모형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산빈곤가구는 소득빈곤가구의 특성과 유사하나 소득빈곤가구와 비교하여 가계의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여 한번 자산빈곤계층으로 빠지면 소득빈곤계층보다 빈곤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산형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빈곤에 비해 자산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자산빈곤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나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가계재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산빈곤계층은 자산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득빈곤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특히, 소득빈곤계층일수록 자산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으며 이들 가계의 재무구조는 비빈곤계층과 비교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산은 빈곤화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빈곤층 및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빈곤예방과 빈곤탈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자산형성지원정책은 단순히 소득지원보다는 저축 및 자산적립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부담이 과중하며,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재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근로와 연계된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빈곤층이 스스로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민·유태균, 「자산빈곤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1호, 2009, 115-138.
- 김진영, 「대우패널 자료를 통해 본 1990년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재정논집』, 제17집 제1호, 2002, 47-74.
- 남상호·권순현,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2008, 3-32.
- 남상호,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현황과 시사점", 『2007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
- 남상호,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석상훈, 「빈곤의 지속-상태의존성 검증-」,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3호, 2007, 79-99.
- 이정우·이성립, 「한국 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 『노동정책연구』, 제1권 제1호, 2001, 39-51.
- 이태진·신영석·김미곤 외,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사용자 지침서 2009』, 2010.

C. Hsiao, Analysis of Panel Data, Cambridge MA: MIT Press, 1986.

Heckman, J. J, "The Incidental Parameters Problem and the Problem of Initial Conditions in Estimating a Discrete Time Discrete Data Stochastic Process", in Structural Analysis of Discrete Data With Economic Applications. edited by C.F. Manski and D. McFadden, MIT Press, 1981.

N.A. Caner and E.N. Wolff, "Asse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84-1999: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50, No.4, 2004, 493-518.

R. Haveman and E.N. Wolff, "The Concepts and Measurement of Asset Poverty: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for the U.S., 1983-2001",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Vol.2, No.2, 2004.